

덴마크의 동물병원

이 장 략*

덴마크의 대부분 동물병원은 수의사 몇사람에 의해서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덴마크동물병원은 새로운 수의학이론을 매우 빨리 받아들여 이를 즉시 아주 정확하게 가축진료에 적용한다. 덴마크에서는 각 동물병원의 진료담당구역이 확정되어 있다.

덴마크동물병원의 주역은 덴마크개업수의사이다. 먼저 덴마크 개업수의사에 관해 그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덴마크개업수의사는 자기들의 권익신장단체인 덴마크수의사회를 중심으로 이른바 일사불란하게 조직화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모든 개업수의사는 자기들의 모교인 왕립수의과대학과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다. 덴마크 사람의 전통적인 협동정신은 덴마크수의임상분야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덴마크에는 현재 약 3,000명의 수의사가 있다. 그중 약 1,000명이 개업수의사이고 다시 약 1,000명이 수의공중보건관계업무 종사자이다. 나머지 약 1,000명 중에서 약 600명이 대학, 연구소, 행정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으며 약 400명은 노령으로 은퇴생활을 하고 있다. 덴마크 유일의 수의학교육기관인 왕립수의과대학(1773년개교)은 근래에 와서는 매년 약 1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그중 약 50명이 개업수의사가 되고 약 30명이 식품검사, 환경위생 등의 공중보건관계업무 종사자가 되며 나머지 약 20명이 대학, 연구소, 제약회사 등에서 일하게 된다. 왕립수의대의 현재 재학생의 남녀비율은 남학생 30명 여학생 70명의 비율로 되어 있다. 덴마크

전체수의사의 현재의 남녀비율은 남자 45명, 여자 55명의 비율로 되어 있다.

덴마크농업평의원회 발행 1990년도 농업관계 통계연보에는 덴마크국내 주요 가축사육두수가 제시되어 있다. 이들 가축사육두수를 덴마크개업수의사수효인 1,000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덴마크개업수의사 한사람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각종 가축수효의 대략을 알게 되는 것이다. 소 2,221마리(젖소 831마리 포함), 돼지 9,190마리(번식용 어미돼지 892마리 포함), 산란용 닭 4,048마리, 브로일러용 닭 10,860마리, 멧크 3,018마리. 덴마크정부발행 1989년도 덴마크 연감에 의하면 덴마크개업수의사는 위에 제시된 주요 가축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수효의 말, 면양, 칠면조, 오리, 및 거위의 건강관리를 맡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이 덴마크에는 상당히 많다. 개업수의사의 업무부담량이 너무 많다하여 수의과대학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1960년대에 한동안 높았었다. 결국은 기존 왕립수의대의 시설을 확충하여 학생수효를 종전의 두배정도로 불리는 방향으로 낙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덴마크의 국토면적(그린란드 제외)은 43,075km²(충청북도와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넓이)이며 이 국토는 행정적으로 현재 14도 county(amter) 277군 commune(kommuner)으로 나누어져 있다. 국토 전체가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어 온 국토가 사실상 낙농지대인 셈이다. 덴마크 개업수의사 1,000명이 각 군에 평균 4명씩 골고루 분산되어 일하고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명예교수(수의약리학)

있다(1970년 4월까지의 전국토가 25도 1,300군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그당시에는 개업수의사가 각 군에 한명꼴로 일하고 있었다.)

덴마크의 수의사는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기존동물병원에 고용되는 경우 초임월급 약 25,000 덴마크 크로네(Danish kroner DKK)(1DKK는 우리나라 돈 약 110원에 해당함)을 받는다. 덴마크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한달에 30,000~60,000DKK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덴마크에서는 대학교수의 월급이 35,000DKK, 대학전임강사의 월급이 28,000DKK, 대학출신 행정부 공무원 초임월급이 19,000DKK인 사실을 감안하면 개업수의사의 수입은 꽤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덴마크개업수의사의 수입과 덴마크개업수의사의 수입은 동일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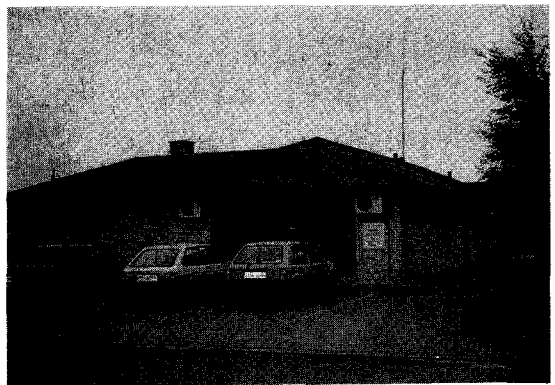
덴마크개업수의사는 국가와 사회에 훌륭히 봉사하고 있다는 긍지를 갖고 있으며 덴마크 제1급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하여 덴마크개업수의사는 업무관련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는 건강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행운을 언제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개업수의사는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의 하나로 되어있고 수의과대학은 들어가기가 가장 어려운 대학의 하나로 되어 있다.

요행히 필자는 1967년 1월에 농촌지대 소재 동물병원 한군데, 1979년 5월에 역시 농촌지대 소재 동물병원 한군데 그리고 1991년 8월에 농촌지대 소재 동물병원 한군데와 도시주택지구 소재 동물병원 한군데, 도합 네군데의 동물병원을 25년의 사이를 두고 방문관찰한 바 있다. 진료시설과 진료기술이 모두 훌륭했다. 수의학의 발전과 사회의 변천을 잘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러한 중에서도 필자로서는 덴마크동물병원의 운영체제에 관해 많은 감명을 받았다. 동물병원의 운영체제는 수의학교육제도, 진료기술발달정도, 국민생활수준, 국민성 등 여러가지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나라에 따라 다를 것이다. 따라서 덴마크 동물병원의 운영체제는 어디까지나 덴마크개업수의사에 의한 덴마크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기는하나 우리나라 개업수의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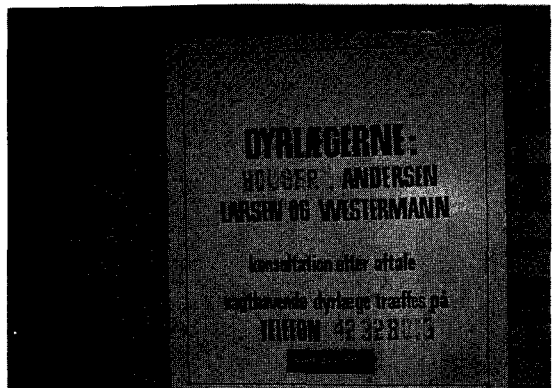
덴마크동물병원의 운영실태를 알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일 것으로 여겨진다. 동물병원운영의 경험이 없는 필자가 동물병원운영에 관해 이야기 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않아 보인다. 덴마크동물병원의 운영실태를 우리나라 개업수의사에게 알려드리기만 한다는 뜻에서 금년에 방문한 바 있는 두군데 덴마크동물병원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 느낀대로를 특히 그 운영실태를 강조하면서 열만큼 적어보기로 한다.

스킷비동물병원

1991년 8월 6일(화요일)에 방문했다. 스킷비(skibby)는 마을이름이다. 스킷비마을은 코펜하겐에서 서쪽에서 약 50km 떨어져 있는 낙농지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약 500명 정도의 작은 농촌마을이다. 이 스킷비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스킷비군에 동물병원 하나가 있다. 동물병



▲스킷비의 동물병원 전경.



▲동물병원의 간판에는 책임수의사 4명의 이름이 적혀있다.

원 간판에는 동물병원이라는 표지와 책임수의사 네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이 표기되어 있다. (이야기의 편의상 여기서는 스킷비동물병원이라고 적기로 한다). 덴마크에서는 동물병원의 경우 뿐만 아니라 사람 병원의 경우에도 상호에 해당하는 명칭이 따로 붙어있지 않다. 한 지역에 하나밖에 없으니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저 수의사 아무개, 의사 아무개라고 적은 작은 명찰만이 붙어 있는 것이 관례이다. 스킷비동물병원은 네명의 남자수의사(Torben Andersen씨, John Larsen씨, Ole Westermann씨 및 Geoffrey Houser씨)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중 앞쪽 세명은 1971년에 왕립수의대를 나온 동기동창생이고 나이는 올해 48세 안팎이다. 끝에 적은 하우저씨는 앞 세사람의 2년후배이다. 라슨씨의 베스터만씨는 동물진료를 담당했고 앤더슨씨와 하우저씨는 소동물진료를 담당하고 있었다. 필자는 이들의 신상에 관한 일체사항을 덴마크수의사회 발간의 회원명부를 통해서 이내 확인할 수 있었다. 덴마크수의사회 명부에는 각 회원의 배우자 부모이름까지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모든 신상사항이 명기되어 있고 특히 대학이나 연구소에 근무하는 수의사의 경우에는 발표된 연구논문의 제목과 발표연도까지도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 단순한 회원명부가 아니고 회원신상명세서 일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농촌마을의 협동조합회원명부의 경우는 각 가정의 수입지출명세까지도 기록되어 있다. 덴마크사람들은 서로 협력하려면 각자의 모든 것을 완전히 털어놓는 일이 첫째 조건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스킷비동물병원에는 경리담당, 입원환측관리담당 등 보조직원 6명이 더 일하고 있었다. 병원대지는 약 2,000평 넓이였고, 병원건물은 약 300평 넓이의 단층건물이었다. 대동물수술실, 소동물수술실, 환측입원실 등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다.

스킷비동물병원에는 대동물을 위한 순회진료용 자동차 두대가 있었다. 이 두대의 순회진료차에는 동물마취총을 비롯한 일체 순회진료장비와 응급투여용 약제가 갖추어져 있었다. 특히 필자의 관심을 끈것은 이 순회진료차가 자기병

원과 교신할 수 있는 소형 무선전신장치와 도수의사회 진료부와 교신할 수 있는 대형무선전신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소형무선장치를 이용해서는 자기의 순회진료상황과 위치를 수시로 자기병원에 연락해주시기도 하고 긴급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측의 발생과 그 위치를 자기병원으로 부터 통지 받기도 한다. 대형무선장치를 이용해서는 순회진료도중에 자기병원 또는 진료차의 시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측에 부딪혔을 때 이를 도수의사회 진료부에 연락해 주기도 하고 급히 필요로 하는 치료약품의 입수를 도와줄 것을 도수의사회 진료부에 부탁하기도 한다. 도수의사회 진료부는 왕립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적절한 지시를 받아 이를 즉시로 순회진료차에 보고해 주기도 하고 필요진료용품을 입수해서 급히 보내기도 한다. 왕립수의대 부속동물병원에서는 긴급 환측 수송차가 주야로 현장에 나가 환측을 대학으로 실어온다. 이렇게 수송되어오는 환측은 학술연구용 또는 학생실습이라해서 일체의 진료비를 받지 않고 치료해주시기로 되어 있다.

스킷비동물병원에서는 매일 아침 8시부터 1시간동안은 수의사 4명이 어제의 진료과정과 그 결과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오늘의 진료방침과 진료순회경로를 서로 상의한다. 9시부터는 대동물진료담당자는 순회진료차를 몰고 현장으로 나가고 소동물진료담당자는 입원환측과 외래환측의 진료를 시작한다. 진료대상환측의 수요가 하도 많아서 언제나 힘이부칠 형편이라고 했다. 필자는 스킷비군 서쪽지대의 대동물순회진료를 맡고 있는 라슨씨를 하루종일 따라다니면서 진료상황을 참관했었다. 진료기술과 진료약품이 최신판 관련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대로였고 온종일 설렘없이 바빴다. 새로운 진료기술이나 치료약품이 개발되면 도수의사회 주관아래 그때 그때 관련전문 교수를 초빙하여 지도를 받는다고 했다. 이러한 진료기술 강습모임은 개업수의사의 진료업무에 별로 지장이 없는 저녁시간에 실시되고 있다.

덴마크개업수의사의 경우도 소득이 많아지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니 휴식 또는 휴가에 관해서



▲왕진은 수의사가 진료할때는 온가족이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덴마크는 현재 한주간의 근로기준시간이 35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실제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일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주일에 5시간을 더 일하게 되는 계산이 된다. 이 5시간을 모아두었다가 각자가 필요할 때 유급으로 하루나 이틀을 쉬고 있다. 스킷비동물병원의 경우는 수의사 한사람이 4주일에 한번씩 주말(토요일과 일요일)근무를 하고 나머지 3번의 주말은 쉬고 있다. 그리고 4사람 수의사의 합의에 따라 교대로 1주간 또는 2주간의 휴가를 즐기기도 한다. 수의사 몇 사람이 동물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게된 연유에는 진료기술의 전문화, 교통수단의 발달 등도 그 이유이지만 이 휴가문제가 크게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덴마크국민의 연간 1인당 GNP(국민총생산)는 1988년에 이미 18,470 미국달러로 공표되어 있다. 필자가 1967년 1월에 덴마크 낙농중심지대인 유틀라트(Jutland)의 알링오브(Allingaabro)마을 소재 동물병원을 찾아보았을 때는 수의사 Knuds Torp씨 혼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알링오브군 전체를 맡고 있었다(당시의 군 크기는 행정구역 개혁전이어서 현재 군의 4분의 1정도 이었다). 동물병원 자체가 주택을 겸하고 있었고, 순회진료중인 토오프씨가 소형무전기를 이용해서 동물병원을 지키고 있는 부인과 수시로 교신하면서 진료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덴마크 전체 근로자가 토요일까지 일하던 때여서 토오프씨는 일요일을 인접군의 수의사와 상의해서 교대로 쉬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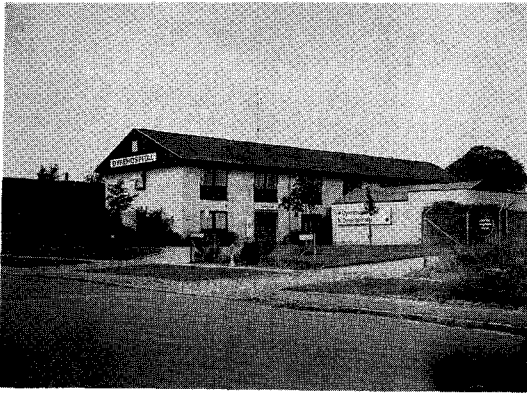


▲비육우 목장에서 수의사가 축주의 도움으로 환축을 끌라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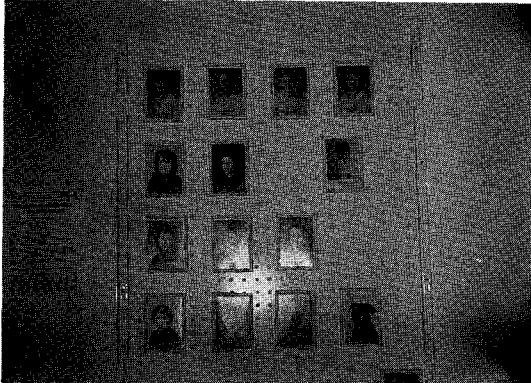
었다. 1967년도의 덴마크국민 한사람당 GNP는 약 2,400 미국 달러였다. 1979년 5월에 스킷비동물병원을 방문했을 때는(이 당시의 덴마크국민 한사람당 GNP는 8,450 미국달러 이었다.)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존·라슨씨와 후배 여자수 의사 한사람이 대동물과 소동물을 분담하여 진료하고 있었고, 동물병원 내부의 잡무는 연로한 선배 수의사 Thamdrup씨가 돌보고 있었다. 이 당시에는 덴마크국민 모두가 토요일 일요일을 쉬고 있는 때이어서 라슨씨는 후배 여자수의사와 교대로 주말을 쉬고 있었다. 순회진료차에는 스킷비군 범위내에서만 교신이 가능한 소형무전기가 장치되어 있었다. 1979년 당시의 스킷비동물원은 지금 스킷비동물병원과는 소재지도 달랐지만 병원대지, 병원크기 등 모두 현재의 4분의 1정도의 규모이었다. 필자로서는 13년의 사이를 두고 스킷비동물병원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확인해 볼수 있었던 것이다.

스킷비동물병원의 운영이익금은 보조직원에게 대한 급여를 제한 나머지를 공동운영 네사람 수의사가 동등하게 나누어서 차지한다고 했다. 한사람이 매달 약 50,000DKK를 배당받는다고 했다. 한달 소득이 이 정도면 덴마크에서는 최상급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필자는 라슨씨의 개인살림집에 들렀을 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펜하겐동물병원



▲코펜하겐의 소동물전문병원 전경.



▲병원안에 수의사 5명의 사진과 보조원 8명, 병원을 지키는 개의 사진이 걸려있다.

1991년 8월 1일(목요일)에 방문했다. 이 동물병원은 코펜하겐시 중심부에서 서남쪽으로 약 5km 떨어진 주택지대에 자리잡고 있는 소동물진료 전문동물병원이다. 상호에 해당하는 고유명칭이 역시 없고 그저 동물병원이라고만 적힌 간판이 붙어 있다(역시 이야기의 편의상 여기서는 코펜하겐동물병원이라고 적기로 한다.).

이 코펜하겐동물병원은 약 1,500평 대지위에 총건평 약 500평의 2층건물을 갖고 있다. 소동물환축 60마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소동물입원실, 애완조류를 위한 특수진료실과 입원실, 그리고 애완용 파충류를 위한 특수진료실 등의 시설이 특히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이 동물병원은 최첨단의 정밀진료기구를 갖추고 있다. 이 동물병원은 1/50,000정도의 지도에도 그 위치가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규모도 크고 유명도도 높다. 이 병원은 코펜하겐시 서남쪽 주택가 전 지역의 소동물을 다루고 있다.



▲자료실에는 진료기록이나 참고문헌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진료가 끝난뒤 모두 모여 진료결과를 검토하고 서로의 의견을 듣는다.

코펜하겐동물병원의 원장은 왕립수의대를 1977년에 졸업한 당년 44세의 Ingeborg Mølbak 여사이다. 이 필박원장 아래에 후배 남자수의사 세사람, 후배 여자수의사 한사람이 일하고 있다. 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다섯명의 수의사가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 동물병원에는 한명의 남자보조원과 7명의 여자보조원이 있었다. 원장 필박여사는 그 성품이 활달했으며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다.

코펜하겐동물병원은 원장이 고용주로 되어 있고 다른 수의사는 피고용인으로 되어 있다. 덴마크의 도회지에 존재하는 소동물 대상의 동물병원은 대체로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피고용수의사는 대부분의 경우 대학을 갓 졸업한 수의사이며 소동물임상에 관한 기술을 익히기를 첫째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원장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후배수의사를 교육하기에 각별한 배려를 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원장 주재아래 전체 수의사가 모여서
외과수술 또는 진료의 결과를 서로 검토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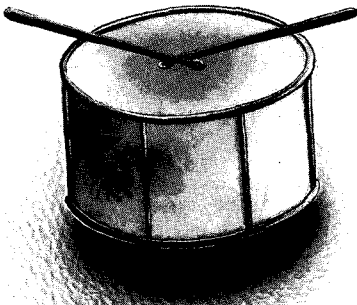
는 광경을 보고서 실감했다. 이러한 모임을 수
시로 가진다고 했다.

【필자후기】

글의 내용이 산만한것 같습니다 관용하십시오. “어느 비개업수의사의 덴마크동물병원 방문기” 정
도로 가볍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몇가지 사실을 소개해 드릴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Folke Rasmussen 교수(본지 지난 10월
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의 도움 때문입니다. 두번에 걸친 스킷비동물병원 방문과 펠박여사 경영 동
물병원 방문은 순전히 라스무센 교수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단편적으로 관련자료도 모두 라스
무센 교수의 호의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기에 적어 친한국파 교수 라스무센 박사
에 대한 필자의 고마운 마음을 나타냅니다.

“Veterinarian Oath”



“인생의 활력을 찾는 수의사”

장엄한 행진곡
“콰이강의 다리”가
가슴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말합니다.
“나는 동물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수의사
임으로 안티펜을 처방한다”고……



수의사의 권위와 품위를 존중하는
주식 과학축산
회사
수신지부담 080-023-2361
전화서비스

